

상호이익의 한일 무역 50년

권오경 _ 나가오카(長岡)대학 교수

목 차

- I. 첫머리
- II. 기술을 얻은 한국과 시장을 얻은 일본
- III. 적자이기는 하나 손해도 아닌 한국의 대일(對日) 무역
- IV. 의존에서 경쟁으로
- V. 한일 양국이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 VI. 새로운 공존을 향한 힌트는 미일 경제의 변모에 달려 있다

국문초록

한국 경제는 일본 경제에 장기간 의존해 왔는데, 그 이유는 지리적 문화적 근접성이라는 경제 합리성과 더불어 국교정상화자금(國交正常化資金)이 현금이 아닌 일본의 재화와 서비스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한국의 대 세계수출에 크게 이바지하였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그리고,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양국 기업 간의 경쟁이 격해지는 양상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미일의 기업 간 경쟁처럼, 한일 간의 경쟁에서도 과감한 scrap and build를 할 수 있는 기업의 출현을 기대하고 있다.

주제어

국교정상화자금의 성격, 대일수입의 의미, 경합, 스크랩 앤 빌드

I . 첫머리

한일 양국의 관계는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로서 희로애락의 역사로 얽혀 있다. 이러한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한일 양국은 서로에게 있어서 필터와 방파제의 기능을 해왔다. 한반도와 일본은 각각 대륙 문명의 필터와 서구 문명의 필터가 되었으며, 또한 한반도는 대륙의 정치적 격변과 공산국가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방파제로서, 일본은 태평양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태풍, 쓰나미)에 대한 방파제로서의 기능을 담당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라는 지리적 조건과 이러한 근접성이 기인한 역사적 조건은 양국 간의 경제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현대에 있어서 양국 경제 발전에 기폭제가 된 한국전쟁 특수(特需), 대일(對日) 청구권자금이라는 커다란 계기를 제공했다. 한일 양국은 역사 인식을 둘러싸고 골이 매우 깊은 상황에 있으면서도 경제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오랫동안 우호관계를 유지해왔다. 그 이유는 말할 필요도 없이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일본에서는 한국 기업에 대한 경제심이 높아지고 한국에서는 일본 경제가 더 이상 자신들의 롤모델이 아니라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일본의 경제 침체와 한국의 경제 호조가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한국의 경제발전은 일본 경제에 위협이 될 것인가’, 혹은 역으로 ‘일본의 경제 침체는 한국에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인가’라는 물음을 설정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검증은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재까지의 추이와 그 구조적 원인을 확인하고, 둘째, 양국 경제의 의존과 경쟁이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어떻게 변모해 왔는지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 기술을 얻은 한국과 시장을 얻은 일본

1. 한국의 독립 이전

식민지 시대는 한민족에게 암울한 시대였지만, 다른 일면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일본의 근대적 공장과 근대적 기술을 학습하고 습득한 시대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암울했던 이 시대에 학습하고 습득한 것들이 독립 후에 초보적인 공업화로 이어졌다고 보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¹⁾

2. 한국전쟁 특수

일본이 일방적으로 한국에게 경제발전의 계기와 자원을 제공한 것은 아니다. 식민지였을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패전 직후의 일본에게 있어서 한국전쟁(1950~1953년)은 부흥을 위한 처음이자 엄청난 기폭제가 되었다. 이웃 나라, 5년 전까지만 해도 자국의 식민지였던 한반도에서 미국과 소련 사이의 냉전 구조에 휘말려 내전이 발발했다. 당시 도지 라인(Dodge line)의 긴축정책에 따른 수요침체로 위기 상황에 있던 일본 기업은 전쟁 물자의 생산 확대로 다시 숨통이 트였다. 그 좋은 예가 공작기계산업이다. 전후 일본에서 공작기계를 제작하는 것은 GHQ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지만, 이웃 나라의 내전으로 인해 5년 만에 해금이 된 것이다. 자유진영의 수호자로 나선 미국은 전장(戰場)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위한 물자를 조달할 수 있었던 것은 거리적으로 보나 생산력으로 보나 일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으로부터의 군수품 조달이

1) 한국의 『매일경제신문』 1975년 9월 20일자 4면에 따르면, 밸브제조기술은 징용된 사람들의 기술습득에 기인하고 있다고 한다.

자유진영의 승리에 기여한 것도 사실이지만, 일본은 그 이상으로 큰 이익을 얻으면서 고도성장기에 돌입할 수 있었다. 이제는 이웃 나라의 불행이 자국의 행운이 되는 잔인한 역사와는 결별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웃 나라의 불행이 자국의 행운의 씨앗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 협력보다 비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3. 국교정상화 이후

전후 20년이 지난 1965년에 한일 양국의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에는 미국의 이해(利害)가 깊이 관련되어 있었다. 1948년 정부 수립²⁾ 이후 한국전쟁을 거쳐 1950년대 후반까지 한국 정부의 수입은 미국의 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 다니우라(谷浦, 1989)는 한국 기업의 수출이 조금이라도 증가하게 되면 정부의 수입이 되는 미국의 원조액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³⁾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의 무역수지 악화로 인한 달러 방위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에 대한 원조도 대폭 삭감되어⁴⁾ 한국의 재정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미국은 태평양 안보 유지를 위해 최전선에 있는 한국을 지켜야 했지만, 재정적으로는 부담이 되고 있었다. 당시 한국과 일본은 국교정상화를 위한 회담을 진행했으

2) 시카고 대학교의 Bruce Cumings 교수는 1990년 6월 9일자 한겨레신문에서 한국 정부가 1948년에 수립된 배경과 관련하여 미국의 세계전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1947년 1월에 당시 국무장관인 George C. Marshall이 국무부 차관보 Dean G. Acheson에게 “남한에 확실한 정부를 수립하여 남한 경제를 일본 경제와 연계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는 메모를 전달했으며 이로 인해 이듬해인 1948년에 정부 수립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3) 谷浦孝雄, 『韓国の工業化と開発体制』(研究双書 No.382), アジア経済研究所, 1989, 31쪽.

4) 한국통계연감에 따르면 외국 원조의 수입 총액은 1957년을 정점으로 그 이후에는 점차 감소되었다.

나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대 동아시아 전략의 일환으로 양국의 회담이 결실을 맺도록 촉구했다.⁵⁾ 그 결과 국교가 정상화되고 이를 통해 미국의 한국에 대한 재정 부담이 가벼워졌다. 또한 일본은 가해자라는 과거의 속박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고, 한국은 경제발전의 재원을 일본에서 도입할 수 있었다. 이처럼 한일국교정상화는 자유진영의 한미일 삼국의 이해가 일치한 결과였다.

국교 정상화와 함께 일본 정부는 청구권자금이라는 명목으로 한국에 무상 3억 달러, 유상 공공차관(재정차관)이 2억 달러, 기타 민간(상업)차관 3억 달러를 제공하였다. 당시 한국의 국가 예산과 일본의 외화 준비액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큰 규모였음을 알 수 있는데,⁶⁾ 한국 내에서는 식민지 지배로 받은 고통에 대한 보상치고는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다.⁷⁾ 그러나 금액의 규모에 대한 논의는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결론이 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이 어떻게 결실을 맺었느냐 하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포항중합제철소 건설로, 이 사업에는 유상 공여자금의 58%가 사용되었다.⁸⁾ 그 밖에도 소양강 다목적댐 건설, 철도 시설의 개량,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경제 재건에 쓰였으며, 이는 이후의 한국 경제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다만 일본 정부의 경제협력자금은 대부분이 현금이 아니라 일본의 '생산물'과 일본의 '용역'이라는 형태로 제공되었다는 것⁹⁾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는 1966~1990년 사이에 제공된, 공공차관보다 규모가 컸던 상업차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 일본의 공업제품

5) 成田千尋, 「米国のベトナム戦争介入と日韓国交正常化」, 『早稲田大学韓国研究所手夏季研究大会「韓国学研究的フロンティア」発表要旨』, 2014, 1쪽.

6) 당시 일본으로서도 외화(USD)는 귀했기 때문에, 외화 지불에 비하면 일본 정부의 부담도 가벼웠을 것으로 보인다.

7) 한국 매일경제신문 1975. 12. 18일자 1면.

8) 주 6과 동일.

9) “한일청구권협정” 제1조 1에 명기되어 있다.

(기계 및 원료)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면서 한국의 제조업이 일본에 의존하게 되는 큰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즉, 이를 계기로 경제 분야에서 의존관계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본은 미국 다음으로 큰 경공업제품의 수출시장으로 한국의 주요 외화획득 대상이기도 했다. 섬유제품의 경우는 미국보다 더 큰 시장이었던 시기도 있으며, 가장 규모가 큰 직접투자국가이기도 했다.

이처럼 한국은 외화획득과 기술도입의 파트너로 일본을 받아들이면서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일본은 경제협력이라는 명목 하에 한국 경제가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가는 구조를 만들었고, 그 결과 일본의 기계 제조업체들에게 있어 한국은 판매시장으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성장한 것이 수출의 역군이었던 재벌기업이었다. 그리고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재벌기업을 중심으로 현재의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형성하게 되는데, 1970년대에 개발도상국이던 한국이 어떻게 중화학공업화를 달성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자.

4. 미키(三木) 총리의 방미(訪美) 이후

한국이라는 매우 가난했던 나라가 단기간에 공업화를 이루어 낸 배경에는 일본에게 제공받은 청구권자금의 역할이 컸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발전을 위한 자본금에 불과했다. 지금의 한국 경제를 있게 한 본격적인 공업화의 성공 요인에는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요소가 크게 작용했다. 그 요소는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국내적 요소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대표적 사건으로 1968년의 청와대 습격사건(1·21사태), 1974년의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을, 국외적 요소로는 공산 세력의 확대(대표적 사건으로는 1969년의 닉슨독트린(아시아 안보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억제하는 것)에 의한 미군 철수와 1975년 캄보디아와 베트

남의 공산화)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방위산업을 우선 시 할 수밖에 없었고, 일본은 한국이 자국 안보의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일본의 대한(對韓) 외교가 크게 바뀐 것은 미키 총리의 미국 방문(1975년) 이후이며, 그 후 한미일 간의 협조노선이 눈에 띄게 강화되었다. 사실 그때까지 일본의 한반도 전략은 등거리외교를 표방했으나, 한국 입장에서 보면 그다지 신뢰할 만한 것은 아니었다. 미키 총리 시대에 들어서 한일 간에 새로운 기축이 마련된 것이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 간의 경제 교류도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해졌다. 다니우라(谷浦, 1989)는 한국이 중화학공업에 주력하게 된 배경으로 닉슨독트린의 영향과 한국 측에 의한 한일 산업분업체제 구축을 지적하고 있다.¹⁰⁾ 또한 한국 산업화의 설계자로 불리는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오원철(吳源哲) 씨의 증언에 따르면 “미국이 미·소 간의 세력 균형(balance of power)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본과 같은 공업국가에서는 병력을 철수시킬 수 없지만, 베트남과 한국처럼 세력 균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농업국가에서는 철수시킬 수 있다는 미국 고위관리의 정보를 듣고, 이후 한국은 방위산업과 중화학공업에 주력했다”고 한다.¹¹⁾

5. 기간산업의 원류

한국의 국내외 안보를 둘러싼 환경 변화가 한국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을 본격화시켰지만, 이를 계기로 한국은 산업기반을 확실히 다질 수 있었다. 그리고 일본은 경공업뿐 아니라 중화학공업에 있어서도 한국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최종 완제품은 한국에서 만들 수 있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일본의 부품, 소재 및 기계

10) 谷浦孝雄(1989), 43~46쪽 참조.

11) 『국방일보』 2014. 7. 14일자.

설비는 필수적이었고 그 대부분은 상업차관의 형태로 제공되었다. 그 결과 한국의 제조업은 일본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졌고, 이는 국교정상화부터 시작된 의존관계가 한층 강해진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한국 기업들은 청구권자금과 이후의 중화학공업 육성 과정을 위해 도입한 상업차관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본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것일까? 한국은 공업화 초기에 일본에서만 기술을 도입한 것은 아니었다. 자동차 기술은 주로 미국, 이탈리아, 영국, 일본 기업에서, 전자제품은 주로 미국과 일본 기업에서 기술을 도입했다. 그러나 문화적, 지정학적 거리의 근접성은 비용 감소의 요인을 제공하였다. 즉, 다른 선진국들보다 이웃나라 일본에서 기술을 도입하는 편이 모든 면에서 비용을 감축할 수 있다는 경제적 합리성이 한일 양국 간 기업거래를 보다 긴밀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Ⅲ. 적자이기는 하나 손해도 아닌 한국의 대일(對日) 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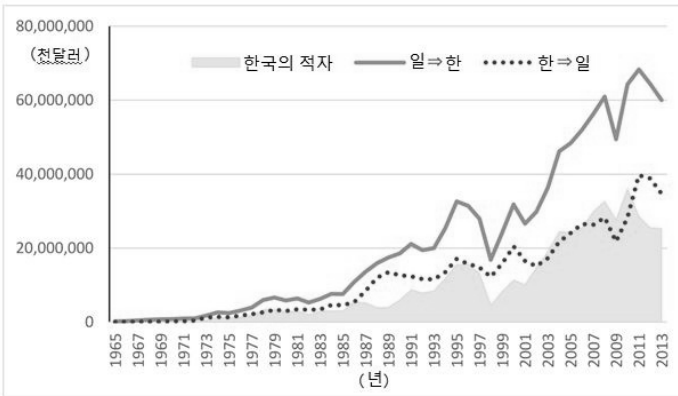
앞서 한국의 공업화 과정에서 양국 경제의 의존관계가 형성되었으며 중화학공업화의 발전에 따라 그 관계도 밀접해졌다고 설명하였다. 여기서는 통계를 통해 그 관계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우선, 2013년 말의 상황을 통해 살펴보자. 한국은 GDP규모로는 세계 14위, 무역규모는 세계 8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3대 수출품은 반도체, 석유제품, 자동차이며, 3대 수입품은 원유, 반도체, 석유제품이다. 한국에게 일본은 3번째로 큰 수출상대국이자 두 번째로 큰 수입상대국이다. 그리고 산유국을 제외하고 가장 큰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무역상대국이며 기록상 독립 이후 한 번도 흑자로 전환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일본 정부가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다는 비판이 있다. 일본의 입장에서 한국은 수출상대국 중에서는 3위, 수입은 6~7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무역 전체로 봤을 때 3위 국가로 주로 수출상대국으로 중요한 국가이다.

한국에서 일본과의 무역은 다른 국가들과는 다른 위상을 갖는다. 그 이유는 오랜 대일 무역 적자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으며, ‘대일무역역조(逆調)’라는 말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 역조라는 말은 이 경우에 ‘일의 진행이 나쁜 방향으로 되어 가는 상태’를 의미하며 거의 대일무역역조에서만 사용된다. 즉, 한국은 한일 간 무역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 대일무역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1965년 이후의 양국 간 무역수지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 1>을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1990년대 이후의 한일 무역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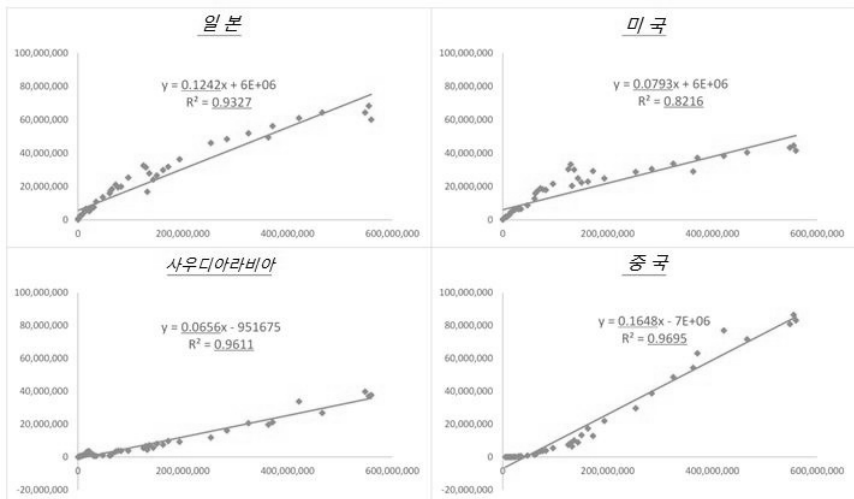


출처: 한국 통계청 kosis.kr 자료를 참고로 작성.

아시아 통화위기, 리먼쇼크와 같은 불황기에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도 감소했으나, 그 이외의 기간에는 일본에서의 수입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에 대한 수출 동향은 일본으로부터의 수입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지만, 규모에서는 약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이러한 구조는 국교정상화 이전부터 볼 수 있는 체질화된 구조이다.¹²⁾ 양국 간 무역(2개국 간 무역)에서 이러한 관계는 대다수의 국가 간 무역에서도 볼 수 있다. 실제로 비(非)산유국과 산유국과의 무역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석유와 같은 천연자원은 어쩔 수 없지만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은 천연자원도 아닌데다 적자 규모가 점점 증가하는 것은 일본 측의 비관세장벽이 높아서라는 것이 한국 측의 입장이다.

〈그림 2〉 한국의 각 국가별 수입과 총 수출의 관계



- (주) 1. 일본과 미국은 1965-2013년, 사우디아라비아는 1967-2013년, 중국은 1973-2013년 데이터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2. 가로축은 해당 국가로부터의 수입액을 나타낸다(단위는 천 달러).
 3. 세로축은 모두 한국의 총 수출액을 나타낸다(단위는 천 달러).
 출처: 한국 통계청 kosis.kr 자료를 참고로 작성.

12) 1964년 6월 13일자 동아일보 사설은 「일본의 대한 경험은 한일 무역 불균형 해소부터」라는 제목이다.

그럼 어째서 한국의 대일 수입은 위 그래프에 나타난 두 시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확대일로에 있는 것일까? 이 질문은 한국에 있어서 대일 수입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와 바꿔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림 2>는 흥미진진한 결과를 보여 준다. 이 그림은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4개의 수입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과 한국의 총 수출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가로축은 해당 국가로부터의 수입액을, 세로축은 모두 한국의 전세계 총 수출액을 나타낸다. 수입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모두 한국의 총 수출과 확연한 정비례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각각의 국가로부터 수입이 활발한 시기에는 한국의 총 수출도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반대로 총 수출이 저조해지면 해당 국가로부터의 수입도 감소하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4개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가 한국의 총 수출 증가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은 거의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상관관계가 뚜렷한 나라는 중국이며, 그 다음이 일본, 미국, 사우디아라비아의 순이다. 그런데 한국과 중국의 국교정상화는 1992년에 이루어졌고, 무역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이다. 즉, 한국의 중화학공업화에 중국이 크게 관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³⁾ 그렇다면 한국의 총 수출은 대일 수입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 특히 한국이 본격적인 공업화를 시작한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까지 현저하게 나타난다. 1965~2013년에는 0.1242이지만, 1965~1979년에는 무려 0.4112($R^2=0.9827$)로 놀랄 만한 상관계수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일본에서 100을 수입하면 한국의 총 수출이 40이나 성장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증가가 한국의 총 수출 증가에 큰 영향을 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이 공업화 과정에서 얼마나 일본에 의존하고 있었는지

13) 또한 1990년대의 주요 수입품은 식물성 물질, 원유, 섬유 등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반도체, 컴퓨터, 철강판으로 주요 수입품이 바뀌었으며, 최대 수입대상국이 되었다. 즉,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한국 기업의 전 세계 수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를 엿볼 수 있다. 한국 기업은 전 세계 수출에 필요한 중간재를 주로 일본에서 도입하는 한편, 일본 기업은 한국이라는 수출 시장을 얻은 것이다. <그림 1>과 <그림 2>에서 한국의 수출이 증가할수록 양국 간의 의존관계가 깊어진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참고로 같은 기간에 미국의 상관계수는 0.2496($R_2=0.9574$), 사우디아라비아의 상관계수는 0.1088($R_2=0.9721$)이었다.

<그림 1>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한국은 일본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림 2>처럼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을 잘 활용하여 전 세계로 수출을 확대해왔다. 한국이 일본 한 나라와 무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과 무역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손익계산 상으로 적자라고 보기보다는 손해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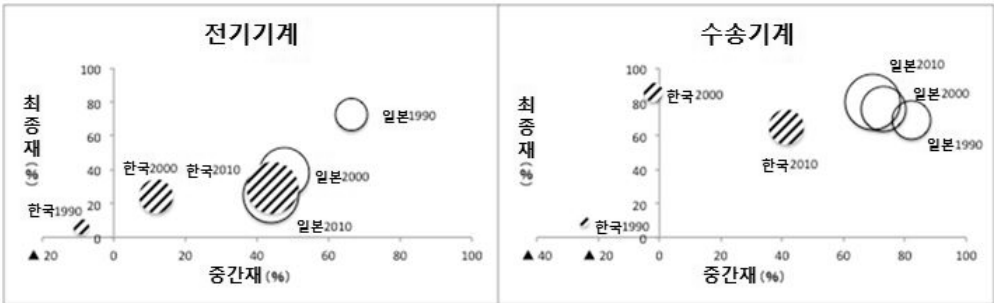
IV. 의존에서 경쟁으로

위에서 무역통계를 통해 일본에 중간재를 의존한 한국의 공업화가 자국은 물론이거니와 일본에도 무역흑자라는 형태로 크게 기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일본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경계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영향이 지속된다면 일본의 경계심이 높아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여기서는 그 이유와 관련하여 의존의 정도가 약화된 반면, 경쟁의 정도가 높아졌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일본 경제통산성 통상백서의 데이터를 통하여 한일 간 의존과 경쟁의 정도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통상백서 2012년판은 동아시아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199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간격으로 무역특화지수로 나타내고 있다. <그림 3>은 한일 양국의 주력 산업인 전기기계와 수송기계 산업의 경쟁 정도를 최종재

와 중간재의 무역특화지수로 나타난 것이다. 무역특자가 클수록 100에 근접하게 되며, 원의 크기는 무역액의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전기기계의 경우 한국은 중간재의 약진이 눈에 띄는 반면, 일본은 최종재와 중간재가 모두 저하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은 20년 동안 우측상단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에 반해, 일본은 한국과는 반대로 좌측하단 방향으로 추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의 경우 양국의 계수(係數) 값과 무역특자 규모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세계시장에서 양국 기업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편 수송기계는 양국 간 거리가 좁혀지고 있지만, 전기기계만큼의 경쟁관계에는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경쟁력 차이로 아직은 일본이 경쟁우위에 있지만 그 격차는 중간재를 중심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두 산업에 공통되는 점은 중간재에서 일본은 계수 값이 작아진 데 반해, 한국은 20년 동안 상당히 커졌다는 것이다.

〈그림 3〉 전기기계와 수송기계의 한일 무역특화계수 추이



- 주: 1. 무역특화계수 = (수출 - 수입) / (수출 + 수입) * 100으로 계산. 총 수출입액으로 계산.
 2. 가로축은 중간재의 무역특화계수, 세로축은 최종재의 무역특화계수. 원의 크기는 중간재·최종재 무역액 (수출 + 수입)을 반영.
 3. 데이터베이스의 특성 상, 상대국의 수입액을 해당 국가의 수출액으로 간주했다.
 4. 수송기계, 자동차, 철도 차량, 선박, 항공기를 포함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조선 산업의 영향이 클 가능성이 높다.
 출처: 경제산업성(2012)이 작성한 RIETI-TID 2011 자료 중에서 한국과 일본만 추출해 작성.

V. 한일 양국이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앞서 전기기계와 수송기계의 무역추이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양국의 주력 산업에서 경쟁의 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는 그 이유를 찾아보고자 한다.

메모리 반도체, 스마트폰 업계에 한정해서 얘기하자면, 현재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보다 국제경쟁력에서 앞서고 있다. 두 분야의 기술의 원류가 일본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 기업의 약진은 바로 ‘청출어람’이라는 표현에 딱 어울리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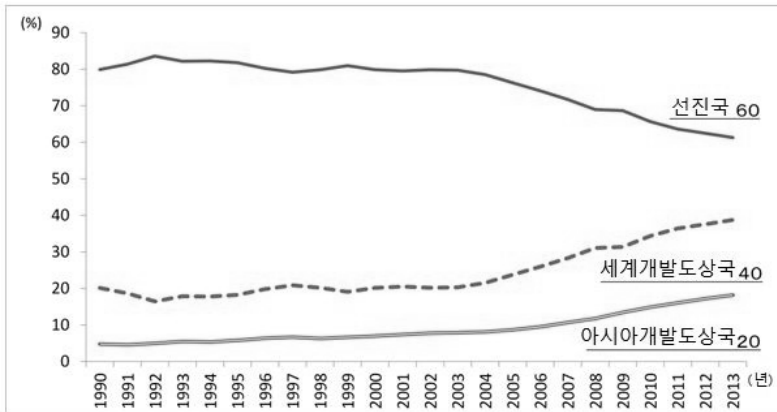
여기에서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졌는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첫째, 반도체와 스마트 폰 모두 IT산업이라는 새로운 분야라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산업(자동차공업, 제철공업, 석유화학공업 등)에 비해 역사가 짧기 때문에 선발국과 후발국 간에 역사적·기술적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분야였다.

둘째, IT산업의 특성으로 비즈니스의 라이프사이클이 짧고 자본집약적인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초기의 대규모 투자는 거대한 진입장벽을 만듦으로써 선발기업이 대량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18개월마다 컴퓨터 칩의 용량이 2배로 증가한다는 무어의 법칙(Moore's Law)처럼 기술 진보가 빠른 분야이기 때문에 비즈니스의 라이프사이클이 다른 산업에 비해 짧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큰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조기 개발과 양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또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 기업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발국 기업들도 당황할 정도로 대규모 투자가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한국 기업에 비해 일본 기업은 느린 의사 결

정→느리고 소규모 투자→느린 개발→느린 양산→낮은 이윤→투자
 재원 축소와 같은 악순환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 두 번째 특성이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일지도 모른다.

셋째, 부품의 모듈화(전 세계에서 규격화되어 있어 교환 가능한 부품
 의 조합으로 제품을 설계하는 것)가 진행됨으로써 후발국 기업들도 최종
 재 개발이 전보다 쉬워졌다는 점이다. 모듈화 이전에 후발국 기업이 선발
 국 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기술을 손에 넣는 방법은 기술이전과 선발국 기
 업의 제품을 사다가 분해하는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밖에
 없었다. 기술이전은 선발국 기업이 인정하지 않는 한 불가능했고,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는 동등한 성능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시장 진입도 늦
 어졌다. 이러한 이유로 선발국과 후발국의 기술에는 일정한 거리가 유지
 되고 있었다. 선발국에 있어서 모듈화의 가장 큰 의의는 비용 절감에 있
 다. 한편, 후발국은 여기에 하나 더 추가된다. 바로 기술 접근 용이성이
 다. 모듈화가 되기 전에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도 얻을 수 없었던 기술(부
 품)을, 세계적 규모를 가진 부품 기업의 글로벌 전개로 인해 쉽게 손에

〈그림 4〉 세계경제(GDP)에서 차지하는 각 경제권별 점유율



출처: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14.

넣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세계적 부품 기업들이 약진함에 따라 후발국 기업의 제품 완성도가 높아져, 선발국 기업과의 기술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표 1〉 삼성전자와 소니의 지역별 판매량 규모

SAMSUNG 전자		SONY	
자국 내	14.5%	자국 내	32.4%
중국	20.4%	중국	6.8%
유럽	22.1%	유럽	20.0%
아시아/아프리카	20.6%	아시아/태평양	11.9%
미주	22.4%	미국	15.7%
		기타	13.2%
연결 매상고(2012년)	201. 2조원	연결 매상고(2012년)	6. 8조엔

주: 201조 원은 약 20조 엔에 상당함.

출처: 각 사의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Annual Report를 기초로 작성.

넷째, 과거의 산업들과는 달리 시장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또한 기존의 제품과 다르게 선진국뿐만 아니라 특히 개발도상국 시장의 중요도가 급격히 높아진 점이다. 〈그림 4〉는 1990년 이후의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각 경제권 별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선진국 경제의 점유율은 약 20% 포인트나 하락하고 있는 반면 신흥국의 점유율은 지난 10년 사이에 약 2배나 급상승하고 있다. 그 결과 1990년대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비율이 8:2 였던 것이 2013년 현재는 개발도상국의 급성장으로 비율 차이가 6:4 가 되었으며, 개발도상국이 약 20년 동안 2배나 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1〉은 삼성전자와 소니의 2012년 매출을 지역별로 나타낸 것이다. 자국시장에서의 매출이 큰 소니와 성장시장인 중국시장에서의 매출이 큰 삼성전자와의 실적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즉, 두 기업의 중국 시장에서의 실적 차이가 경쟁력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일본 기업의 구조 조정에 따른 인력의 유출(spill-over)을 들 수 있다. 실적 부진에 따른 일본 IT대기업의 구조조정은 동아시아 국가의 기업에 일본의 인재 유출을 촉진하여 기술 격차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섯째로 식스시그마(six sigma-품질 불량으로 인한 손실을 없애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와 같은 미국의 우수한 점을 일본 이상으로 흡수했다는 점이다. 오랜 기간 삼성그룹에 근무한 손욱(孫旭) 씨는 한국 기업의 약진의 이유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식스시그마의 도입으로 일본 기업보다 수율(收率, yield rate)이 향상되었음을 기술하고 있다.¹⁴⁾

일곱째, 엔화강세를 이유로 들지 않을 수 없다. 일본 기업의 해외 생산이 확대일로에 있다고는 해도, 모든 것을 해외에서 조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급격한 엔화강세는 일본 국내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일본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저하시킨 것이다. 그러나 플라자합의 이후 엔화강세가 지속되었던 것은 아니다. 엔화약세 기간도 상당히 오랜 기간 수 차례 있었음을 감안하면 엔화강세를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본 절에서는 양국의 기업이 경쟁 중인 IT 분야(전기기계 분야)의 일부를 통해 경쟁이 심화된 배경으로 7 가지 요인을 들었는데, 이러한 요인들이 상호 작용하여 생긴 결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VI. 새로운 공존을 향한 힌트는 미일 경제의 변모에 달려 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기술 환경의 변화, 또는 그러한 변화

14) 손욱, 『삼성, 집요한 혁신의 역사』, KOREA.COM, 2013, 96-97쪽.

에 대한 대응의 차이로 인해 한일 기업 간의 경쟁은 확실히 치열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양국의 모든 기업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현상이다. 왜냐하면 한국은 국제경쟁력을 가진 중간재 기업이 적다는 산업 조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수출 대기업은 생산과정에서 일본 기업으로부터 수입한 중간재를 투입하여 자국에서 조달할 수 없는 부분을 보충하면서 발전해왔다. 이러한 대다수의 한국 기업에서 보인 패러다임은 지금도 건재하지만,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기업은 지금까지 없었던 수요를 국내 관련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중간재의 국산화를 추진해 왔다. 이것이 글로벌경쟁이 가능한 중간재 기업(그 대부분이 IT 부문의 상장 대기업)을 한국에도 등장시킨 원동력이며, 지금까지 한국 기업에 중간재를 제공해온 일본 기업에게 큰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중간재 기업은 그 대부분이 재벌 대기업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에 비해서 저변환경이 매우 좁다. 오랜 대일 무역적자가 이어져 온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점차적으로 중간재 기업이 출현하고 있다고는 해도 중간재를 모두 국산화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따라서 한국 기업의 호조가 일본 기업의 침체로 이어진다는 예는 극히 일부에만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한국 중간재의 산업 조직상의 문제로 인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한국 기업의 성장은 일본의 중간재 기업의 호조로 이어질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일본의 중간재 기업의 침체는 분명 많은 한국 기업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먼 미래를 전망해 봤을 때, 한국 기업이 계속해서 일본의 중간재 기업에 의존하지는 않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경쟁의 범위와 정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과거 일본 기업의 발전과정을 살펴보자. 지금에 와서 보면 일본 기업도 첨단산업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여러 산업(섬유, 조선 등)에서 사업을 전개했으나, 현재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스크랩 앤 빌드(Scrap & Build) 전략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선진국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더욱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 한일 경제를 전망하는 데 있어 참고가 될 만한 것이 미일 경제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미국으로부터 많은 기술을 도입하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분야에 따라서는 미국의 산업보다 더 큰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다. 자동차가 좋은 예이다. 또한 전기전자 분야는 일본 기업이 압도한 것처럼 보였으나, 가전을 제외하고는 재역전되었다. 미국의 전기전자 기업은 인터넷과 IT기 기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것이다. 일본 기업이 한국 기업과의 경쟁을 피하고 싶다면, 미국의 인터넷관련 기업 및 IT장비 기업과 같은 새로운 산업을 개척하거나, 미국의 자동차기업을 뛰어넘은 자국의 기업과 같은 노력을 해야 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노력은 혁신(innovation)을 의미한다. **日本空間**

번역: 강은정(조치대학 신문학과)

논문 투고일 : 2015년 4월 30일

논문 심사일 : 2015년 5월 19일

게재 확정일 : 2015년 6월 10일

참고문헌

- 손욱, 『삼성, 집요한 혁신의 역사』, KOREA.COM, 2013.
- 경제산업부, 『통상백서2012年版』, 경제산업부, 2012.
- 谷浦孝雄, 『韓国の工業化と開発体制』(研究双書No.382), アジア経済研究所, 1989.
- 成田千尋, 「米国のベトナム戦争介入と日韓国交正常化」, 『早稲田大学韓国研究所若手夏季研究大会「韓国学研究的フロンティア」発表要旨』, 2014.

Abstract

Fifty Years of Japan-Korea Trade Relations Mutual Benefits

Oh-Gyoung Gwon

Korea's economy has long relied on the Japanese economy to achieve industrialization. This is because 1) Korea and Japan are close to one another culturally and geographically, and while some believe the second reason is because of the normalization funding exchanged between the two countries as recompense for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the real reason is that 2) Japan offers goods and services rather than money. In addition, imports from Japan played a much larger role in South Korea's economy than those of any other country. In addition, Korea's reliance on Japan has decreased little by little to the point that on the contrary, Korea is becoming a confirmed competitor of Japan and its economy. This growth is particularly noticeable in the electrical machinery industry, and there is also much growth in the transportation machinery industry. From this background, we see Korea's economy growing as a result of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industrialization, its new IT industry, modularity, its performance in emerging markets, the spillover of talent from Japanese companies, Six Sigma, the high yen, and so on. Finally, like the competition between American and Japanese companies, the Korea-Japan economic competition aims for the emergence of more daring companies that are scrap-and-build.

Key words

The nature of the normalization funding arranged between Japan and Korea, reliance on Japan, competing with Japan, scrap and build